

## 법무매거진

#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시대 변화 반영 목표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들을 위촉하고,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민법 근친혼 무효 조항 헌법불합치,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 등 현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국제사회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는 출생, 혼인, 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이에 법무부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조경애 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족법 특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하고 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과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모두 공감할 수 있

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로스쿨타임즈)